

언어과학연구 61 (2012)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안주호(순천향대학교)

Ahn, Joohoh. 2012. On the Functional Meaning of the Discourse Marker Derived from Exclamation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61, 91-116. This paper examines the use and distribution of exclamations as a discourse marker in conversational Korean. A corpus of the Sejong Corpus was used to search for the tokens of exclamations as a discourse marker, 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each of the instances of the discourse marker were analyzed in light of the context it appeared in. The functions of {a, eo, e, eum, eung, nae, ani} as a discourse marker include having attention, connecting, emphasizing, switching topics and having a turn-taking. These functions, also evidenced in some exclamations, may have derived from the original meaning of {a, eo, e, eum, eung, nae, ani}. Analyses of {a, eo, e, eum, eung, nae, ani} in more diverse contexts and with aural data is needed to obtain a complete picture of its function and distribution as a discourse marker. (Soonchunhyang University)

Key words 감탄사(exclamations), 담화표지 {아, 어, 음, 예, 응, 네, 아냐}(discourse marker {a, eo, e, eum, eung, nae, ani}), 주의 환기(having attention), 강조하기(emphasizing), 화제 전환(switching topics), 발언권 유지(having a turn-taking)

1. 문제제기

한국어 연구에서 구어와 문어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담화표지이다. Schiffrin(1987)이 담화표지를 “담화의 단위를 구분하는 연속적이고 의존적인 요소”라고 정의한 후, 1990년대부터 한국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담화표지는 담화의 구성단위인 화자, 청자, 그리고 화제 사이의 연결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장치인데 구체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연결성과 함께 담화표지의 대표적 특징이다. 이러한 담화표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기원을 기준으로 보면 감탄사에서 유래한 것, 부사에서 유래한 것, 의문사에서 유래한 것, 구절에서 비롯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

감탄사에서 유래된 담화표지는 한국어 품사 체계에서 감탄사와 관련되며 간투사라고도 하는데, 다른 담화표지와 비교하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형태적 다양성 때문이다. 감탄사에서 유래된 담화표지에는 여러 변이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개인방언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어 이를 체계화하기 어려웠다. 또한 담화표지가 명제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의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화용적 의미기능을 일목요연하고 명시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구어말뭉치에서 사용되는 감탄사에서 유래된 고빈도 담화표지 {아, 어, 응, 음, 오, 네, 아니} 등의 의미를 사전과 비교하여 보고, 실제 구어말뭉치에서의 사용례를 중심으로 화용적 의미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2.1 선행연구

1) 개별 담화표지의 연구로는 감탄사류인 ‘네, 그래, 아니, 글썄, 음, 아니, 애, 이봐, 야’ 등에 대한 연구(김하수 1989, 이원표 1995, 이한규 2010), 대명사에서 출발한 ‘이거, 거, 저(기), 그, 왜, 뭐, 뭐냐, 어디’ 등에 대한 연구(이한규 1999) 등이 있다. 접속 부사에서 출발한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 등에 대해 다룬 안주호(2000)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 아, 어, 참, 다’ 등을 다룬 강우원(2008), 김영철(2006) 등을 들 수 있으며, 부사에서 출발한 ‘좀’이나 ‘막’ 등을 다룬 Yu(2008), 안주호(2009) 등을 들 수 있다.

담화표지는 논자마다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담화 간의 연결성, 다양한 범주성, 다중 기능성, 수의성(optionality), 구어성(orality), 문두 위치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Schiffrin, 1987 ; Aijmer, 2006). 이원표(2001)에서는 담화의 단위란 문장만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작은 구와 단어 단위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담화표지가 발화의 앞뿐만 아니라, 중간, 또는 끝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대체로 ‘발화의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화를 연결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거나 담화구조를 표시하는 등의 일정한 담화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요소’로 정의한다. 선행연구에서 담화표지로 연구된 것에는 감탄사에서 유래된 것, 대명사에서 유래된 것, 부사나 관형사에서 비롯된 것, 용언에서 비롯된 것 등으로 다양하며, 구나 절이 익어져서 이루어진 것도 있다.

- (1)가1: 어~ 공무원::이 에~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가2: 에~ 우리나라 경우에 그::~ 에~ 공익필수사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 가3: 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병원 은행.
- 가4: 이런 거 못지않게 네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 가5: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 가6: 아~ 국민 일상생활에 중요하다.
- 가7: 어::~ 그리구 만약 공무원::노조가 설립될 경우에,
- 가8: 만약 어~ 일을 지연시킨다든지,
- 가9: 태업을 한다든지,
- 가10: 이런 경우에 에~ 국제경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 가11: 많은 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1)의 예는 화자 1인이 발화한 내용인데, 이 안에는 명제내용도 있으나 {아, 아~, 어~, 어::~, 에, 에~, 네} 등의 담화표지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감탄사의 빈도수에 대한 조사는 국립국어원(2002)의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와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 의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어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서상규·구현정(2005)가 있는데 여기서의 담화표지에 해당하는 감탄사 유형과 빈도의 목록을 보면 (2)와 같으며, 안의정(2008), 강범모·김홍규(2009)에서의 빈도수는 각각 (3), (4)와 같다.

- (2) 감정 감탄사: 어>아>음>응>아니>야>뭐>그래>아이>예
 의지 감탄사 : 응>아니>예>그렇지>아니야>그럼>그지>뭐야>네>글쎄
 형식 감탄사: 어>음>뭐>그래>참>예>엄>으음 (서상규·구현정, 2005)
- (3) 어 > 아 > 뭐 > 음 > 예 > 네 > 응 > 예 > 아니 > 저 > 이 > 야 > 아이 > 머 > 자 > 그래 > 아유 > 아니야 > 어어 > 여보세요 > 참 > 어머 > 허 > 하 > 아아 > 왜 > 와 > 네에 > 오 > 아냐 > 오케이 > 에이 > 치 > 으응 > 글쎄 > 흠 > 그렇지 > 예 (안의정, 2008)
- (4) 아니 > 그래 > 아 > 뭐 > 네 > 응 > 자 > 야 > 예 > 글쎄 > 참 > 어디 > 아아 > 애 > 그럼 > 아이고 (강범모·김홍규, 2009)

(2)의 결과는 구어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한국어 품사 분류에 의거하여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형식 감탄사’로 나누어 빈도수를 측정한 것이다. (3)의 결과에서 보면 구어말뭉치에서 한국어 화자들은 {어, 아, 음, 네, 응, 예, 아니} 등이 고빈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에서도 {아니, 아, 네, 응}의 순서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최현배(1945/1961)에서는 감탄사라고 명명한 후, ‘마디나 월 앞에서 그것들을 꾸미는 씨를 이름’이라고 정의했으며, 화자의 정신 상태나 작용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소리를 ‘감정적 감탄사’로 부르고, ‘대답, 부름, 단념, 주의, 추어줌, 피임, 재촉, 어름, 힘쌈’ 등을 나타내는 것을 ‘의지적 감탄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창돈(1980)에서는 감탄사의 갈래를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운율 감탄사’로 나누었으며, 남기심·고영근(1985:180-183)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라고 정의한 후,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감탄사,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 감탄사, 특별한 뜻 없이 나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²⁾

2) 남기심·고영근(1985:180-183)에서는 ‘감정 감탄사’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쁨: 허, 허허, 하, 하하, 성냄: 예, 옛, 예끼, 한숨: 허, 허허, 후, 후유, 놀라움: 아, 애고, 애구머니, 이크, 아따, 저런, 낫떨어짐, 뉘우침: 어, 영, 아뽀사, 아차’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의지 감탄사’는 ‘발화 현장에서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대방에게 행동 요구: 아서라(단념), 자(독려), 여보, 여보세요, 애, 이봐(부름), 대답: 예, 암, 아무렴, 오냐, 응, 그래, 옳소, 글쎄, 아니오, 친만에’ 등을 들었으며, ‘입버릇 및 더듬거림: 특별한 뜻 없이 나는 소리들’로 ‘아무 느낌이나 생각 없이 단순히 입버릇으로

이러한 남기삼·고영근의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감탄사를 다룬 것이 신지연(2001)인데, 여기에서는 감탄사의 사용을 발화 상황에서의 청자 고려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³⁾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감탄사는 감성적 감탄사로, 청자를 상정하는 감탄사는 ‘의지적 감탄사’로 나누고, 의지적 감탄사는 다시 ‘부르거나 대답하는 소리, 명령적 감탄사, 형식 감탄사’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남기삼·고영근(1985)에서는 입버릇이나 머뭇거림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의지적 감탄사의 하위 분류인 ‘형식 감탄사’로 다룬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적으로는 감정을 나타내거나,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아}의 경우 남기삼·고영근에서는 감정 감탄사로만 다루고 있지만, {아}는 실제로 청자의 발화에 대해 반응하는 표지로 사용된다. 또한 남기삼·고영근(1985)에서는 더듬거림의 말로, 신지연(2001)에서는 형식 감탄사로만 분류하고 있는 {음}은 감정, 형식, 의지의 감탄사로 모두 쓰인다. 이와 같이 각 감탄사의 실제 의미기능이 정밀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빈도가 높고 자주 쓰이는 {아, 어, 에, 음, 응, 네, 아니}의 기술과 현실 사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2.2 {아, 어, 에, 음, 응}의 사전에서의 기술

이 글의 대상으로 삼는 감탄사 {아, 어, 에, 음, 응}의 사전에서의 기술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감탄사 {아}는 감정 감탄사로 사용될 때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감동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풀이했는데,⁴⁾ 이는 <표준, 연세, 고려>에서 모두 같다.⁵⁾ 그런데 형식 감탄사로는 ‘말을

섞어 내는 것 : 머, 뭘, 그래, 말이지,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이 얼른 안 나올 때 말을 더듬는 모양으로 아무 뜻 없는 소리로 내는 것: 어, 에, 저, 거기지, 음, 에헴, 에헴’ 등을 들고 있다.

3) 신지연(2001)에서는 감탄사를 감성적 감탄사와 의미적 감탄사로 나누고, 감성적 감탄사에는 [+처음 낱]에 ‘아, 아이고, 예그머니, 아참, 저런, 어머니, 피, 흥, 체, 휴우’를 포함시키고, [-처음 낱]에 ‘아이, 애개, 예끼, 윈, 욱설 류’를 포함시켰다. 의지적 감탄사에는 ‘부르거나 대답하는 소리’로 ‘여보, 이봐, 애, 아/아니오, 글썽, 응, 예’ 등을, ‘명령적 감탄사’에는 ‘자, 쉬, 아서라, 에헴’ 등을, ‘형식 감탄사’에는 ‘음, 저, 뭘, 저기(요), 있잖아(요), 말이야’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아}의 사전에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아02 「감탄사」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소리. 「4」 ((억양을 내렸다 올리면서)) 모르던 것을 깨달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소리, (억양을 내렸다 올리면서)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내는 소리'로 풀이한 것은 모두 동일하나, '남에게 말을 걸거나 할 때 남의 주의를 끌려고 말에 앞서 내는 말,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말을 끝면서 내는 말' 등의 풀이는 <연세>에서만 나타난다.

{어}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감정 감탄사로서 '가벼운 놀라움, 당황한 느낌 등을 나타낼 때 내는 소리, 기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낼 때 내는 소리'라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⁶⁾ 그러나 '한탄, 걱정, 근심, 유감 등의 느낌을 나타낼 때 내는 소리,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탄할 때의 소리'는 <고려>에만 기술된 내용이다. 또한 형식 감탄사로 볼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말을 걸거나 주의를 끌 때 내는 소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된 내용이지만,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끝면서 내는 소리'는 <연세>에서만 기술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형식 감탄사로 '다음 말을 잇거나 생각하고 있을 때 내는 소리,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호응하며 내는 소리'로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은 모든 사전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의지 감탄사로 사용되어 '상대방

을 때 내는 소리. <표준 국어대사전>

나. 어⁴ ①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말. ② 무언가 감동적인 것을 보거나 듣고 감탄할 때 내는 말. 어3② ③ 놀라움이나 당황한 느낌을 나타낼 때 내는 말. 어3① ④ 근심, 걱정, 절망, 한탄 따위의 느낌을 나타낼 때 내는 말. 오7② ⑤ 말을 하기 전에 남의 주의를 끌거나 강조하려고 할 때 내는 말. 어3③ <고려 한국어사전> 다. 어2(감) ① 가벼운 놀라움이나 당황한 느낌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 ② 감동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말. ③ 한탄, 걱정, 근심, 유감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④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탄하듯이 소리내는 말. ⑤ 남에게 말을 걸거나 할 때 남의 주의를 끌려고 말에 앞서 내는 말. ⑥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말을 끝면서 내는 말. <연세 한국어사전>

5) 이 글에서는 편의상 <표준 국어대사전>은 <표준>으로 <연세 한국어사전>은 <연세>, 그리고 <고려 한국어사전>은 <고려>로 표시한다.

6) {어}의 사전에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어2 「감탄사」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는 소리. <표준 국어대사전>

나. 어³ ① 가볍게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내는 말. 어4③ ② 무언가에 감동했을 때 내는 말. 어4② ③ 상대방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때 내는 말. 어4⑤ <고려 한국어사전>

다. 어2(감) ① 가벼운 놀라움이나 당황한 느낌 등을 나타냄. ② 감동의 느낌을 나타냄. ③ 한탄, 걱정, 근심, 유감 등의 느낌을 나타냄. ④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탄하는 소리. ⑤ 남에게 말을 걸거나 할 때 남의 주의를 끌려고 말에 앞서 냄. ⑥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말을 끝면서 내는 소리. <연세 한국어사전>

이 부름에 대답할 때 쓰는 말, 상대방의 물음이나 명령 등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상대방의 말을 다시 물을 때 쓰는 말, 상대방에게 대답이나 행동을 빨리 하도록 조를 때 쓰는 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르게 하도록 할 때 쓰는 말' 등의 기능을 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도 역시 모든 사전에 없는 상태이다.

{예}는 감정 감탄사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 속이 상할 때 내는 말, 기분이 좋거나 상쾌할 때 내는 말'로 상반되게 설명되었는데, 전자는 <표준, 고려>에서의 기술이며 후자는 <연세, 고려>에서의 기술이다.⁷⁾ 형식 감탄사에 해당되는 것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말을 하다가 뒷말이 곧 나오지 않아 생각을 정리할 동안 내는 말'로 풀이한 것인데 이는 <고려>에서의 뜻풀이이고, '스스로 어떤 생각을 끊어 버리려고 할 때 내는 말'은 <표준, 고려>에서의 뜻풀이이다. 이외에도 '무엇을 생각하거나 기억을 더듬을 때 내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는 세 사전에서 모두 같다. 그런데 의지 감탄사로 '남의 부탁 따위를 가볍게 거절할 때 내는 말, 남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나무랄 때 내는 말'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는 <표준, 고려>에서의 뜻풀이이며 <연세>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음}의 경우는 <표준, 고려>에서는 감정 감탄사로 '무엇이 불만스럽거나 걱정스러울 때 내는 소리'로 뜻풀이했으며, <표준>에서는 '의문스러울 때 내는 소리, 혹은 북한어에서 무엇을 비꼰 때 내는 소리'라고 뜻풀이했다.⁸⁾ 형식 감탄사로는

7) {예}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예2 「감탄사」 「1」 뜻에 맞지 아니하여 속이 상할 때에 혼자서 하는 소리. 「2」 가볍게 거절하는 뜻으로 하는 소리. 「3」 남을 나무랄 때 하는 소리. 「4」 스스로 생각을 끊어 버리려 할 때 내는 소리. 「5」 무엇을 생각하거나 기억을 더듬을 때 내는 소리. <표준 국어대사전>

나. 예1 {1} 선뜻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말을 하다가 뒷말이 곧 나오지 않아 생각을 정리할 동안 내는 말. {2} 마음에 들지 않아 속이 상할 때 내는 말. {3} 남의 부탁 따위를 가볍게 거절할 때 내는 말. {4} 남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나무랄 때 내는 말. {5} 스스로 어떤 생각을 끊어 버리려고 할 때 내는 말. {6} 무엇을 생각하거나 기억을 더듬을 때 내는 말. {7} 기분이 좋거나 상쾌할 때 내는 말. <고려 한국어사전>

다. 예2(감) ① 말을 시작하거나 말하는 도중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내는 소리. ② 기분이 상쾌하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연세 한국어사전>

8) {음}의 사전에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음1 「감탄사」 「1」 무엇을 수궁한다는 뜻으로 내는 소리. 입을 다물고 입속으로 낸다. 「2」 무엇이 불만스럽거나 걱정스러울 때 내는 소리. 「3」 의문스러울 때 내는 소리. 「4」 『북한어』 무엇을 비꼰 때 내는 소리. <표준 국어대사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의지 감탄사로 ‘무엇을 수궁한다는 뜻으로 내는 소리’라는 것은 <표준, 연세, 고려>에서의 설명이다.

{응}의 경우는 감정 감탄사로 해라할 자리에 쓰이고, 형식 감탄사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⁹⁾ 그러나 의지 감탄사로는 ‘상대편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부름에 응할 때 쓰는 말’이라는 풀이는 <표준>에서 하고 있으며, ‘상대편의 대답을 재촉하거나 다짐을 들 때 쓰는 말, 남의 행동이 못마땅하여 질책할 때 하는 말’로는 <표준, 연세, 고려>에서 기술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네/예} 등 감탄사에서 유래된 담화표지가 기술되고 있는데,¹⁰⁾ 이 중 {네}를 대

나. 음³ {①} 상대방의 말을 수궁할 때 입을 다물고 조용히 내는 말. {2} 불만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조용히 내는 말. <고려 한국어사전>

다. 음4(감) 상대방이 말한 것을 수궁하거나 고민스러울 때 내는 소리. <연세 한국어사전>

9) {응}의 사전에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응01 「감탄사」 「1」 상대방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부름에 응할 때 쓰는 말. 하계할, 또는 해라할 자리에 쓴다. 「2」 상대방의 대답을 재촉하거나 다짐을 들 때 쓰는 말. 「3」 남의 행동이 못마땅하여 질책할 때 하는 말. <표준 국어대사전>

나. 응 {①} 해라나 하계할 자리에 쓰여, 상대의 말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하거나 부름에 대답할 때 하는 말. {2} 상대방의 대답을 재촉하거나 다짐을 받을 때 하는 말. {3} 남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할 때 하는 말. <고려 한국어사전>

다. 응(감) ① 나이가 비슷한 사이나 손아랫사람에게 대답하는 말, 대답을 재촉하는 소리. ② 무슨 일이나 남의 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 불평을 나타내는 말. <연세 한국어사전>

10) {예/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가. 예06[예 :] 「감탄사」 「1」=네03¹. 「2」=네03². 「3」=네03³. 「4」=네03⁴. 네03 「감탄사」 「1」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2」 윗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에 동의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3」 윗사람의 말을 재우쳐 물을 때 쓰는 말. <표준 국어대사전>

나. 네04 02 「감탄사」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는 소리. 네5: 감. 존대할 자리에서 대답하거나 반문하는 말. 예6 : 감. ① 묻는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말. ② 잘 알지 못하거나 미심쩍어서 재차 되묻는 소리. ③ 상대방의 말에 이어서 응답해 다음 말을 이어가는 존대의 말. ④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존대의 말. <연세 한국어사전>

다. 네⁵ {①} 윗사람의 물음이나 부탁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하는 말. 예8{①} 네 {2} 윗사람이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뜻밖의 말에 놀라 반문할 때 하는 말. 예8{2} 네 {3}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할 때 하는 말. 네 {4} 주로 문장 끝에 쓰여, 윗사람에게 조르거나 재촉할 때 하는 말. 예⁸ [예:] {①} 윗사람의 물음이나 부탁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하는 말. {2} 윗사람이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뜻밖의 말에 놀라 반문할 때 내는 말. {3}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할 때 하는 말. {4} 윗사람에게 조르거나 재촉할 때 말끝에 덧붙여 하는 말. <고대 한국어사전>

표형으로 삼으려 한다.¹¹⁾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명시적인 설명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3단계 말뭉치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 자료에서 나타난 {아, 어, 예, 음, 응, 네, 아니}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고 기능별 이형태에 대해 밝히려 한다.¹²⁾

3. 감탄사에서 유래된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담화표지에서 유래된 {아, 어, 예, 응, 음, 네, 아니} 등의 의미기능을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형식 감탄사, 의지 감탄사로 나눈 것은 이들의 의미기능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담화표지로서 감탄사에서 유래된 {아, 어, 예, 음, 응} 등의 기능은 두 개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보 표시] 기능이며, 나머지 하나는 [감정 표시] 기능이다. 2장에서 살펴본 감정 감탄사로 쓰인 것이 [감정 표시] 기능이고, 형식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로 쓰인 것을 [정보 표시] 기능으로 두려 하는데, 먼저 다음 (5)의 예를 살펴본다.

(5)가1: 김영기 차관계 제가 먼저 여쭙 보겠습니다. 그~ 김정일위원장은 과연 서울에 오겠습니까? 온다면 언제 오겠습니까?

나1: 네.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이~ 기념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가2: 네.

나2: 어~ 머~ 핵심적인 내용은 남북 공동서는 반드시 이행해 나간다, 가. 아! 관철해야 된다. 중도하 이~ 만단을 해서는 안 된다.

가3: 음.

11) 강범모·김홍규(2009)의 조사에서는 {네}가 {예}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표준어 규정에는 {네}와 {예}를 모두 표준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사용빈도수로 보아 {네}를 대표형으로 잡는다.

12)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3단계 말뭉치 중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20대의 일상대화가 담긴 순수구어, 대담, 방송대화 등의 준구어 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구어말뭉치 자료를 선택하였다.

나3: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4: 근데 남북 공동선언::을 지키자는 것인데 남북 공동선언의 제 오 항에 김정일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개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나4: 네.

가5: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가 어~서 이~ 서명을 했죠.

나5: 예.

가6.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했고

(5)에서는 담화표지 {네/예}가 총 4회 등장한다. 이 중 (나1)는 ‘김정일 위원장은 과연 서울에 오겠습니까?’라는 선행발화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된 것이고, 나머지 {네}의 경우는 응답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¹³⁾ 즉 (가2, 나4, 나5)는 발화전체를 본다면 중간에 삽입된 내용으로 선행발화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만약 이 표지가 없다면 대화참여자인 (가)와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발화내용을 경청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5)는 발화내용을 전사한 것이어서 그러하나,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를 통해 경청하고 있는 것을 표시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의미로 공손성을 표시하기 위한 체면유지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¹⁴⁾ 따라서 예 (5)에서는 (나1)만이 질문에 대한 [정보 표시, 의지 표시]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고, 나머지는 응답과 관계없이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계를 지켜주기 위한 [정보 표시, 형식 표시] 기능을 한 것이다. 따라서 감탄사에서 유래한 담화표지의 기능은 <표1>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1>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분류

-
- 13) 익명의 심사자는 (나1)의 {네}는 발화차례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표지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능도 물론 가지고 있으나 선행발화가 의문문인 점을 감안하여 응답의 기능으로 보았다.
- 14) 언어사용에서 공손성이 지니는 중요성은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Brown & Levinson(1987)이 공손성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책략 이론을 발표하고, 그 이후 담화분석, 화용론과 제2언어 교수학습 분야에서 공손 책략을 주요 분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정보 표시] 기능	[의지 표시] 기능	[+긍정] 네, 어, 응, 음, 예
		[-긍정] 아니
	[형식 표시] 기능	[+긍정] 네, 아, 어, 예, 음, 응,
		[-긍정] 아니
[감정 표시] 기능	: 기쁨, 성냄, 한숨, 놀라움 등	

3.1 [정보 표시, 의지 표시] 기능

앞서 2.1에서 사전에서의 감탄사의 각 정의와 사용법을 살폈다. 이중 [정보 표시, 의지 표시]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네, 어, 응, 음, 예, 아니} 등이 있다. 이것은 의지 감탄사로 본 기능 중의 하나인데, 선행발화의 호명, 질문, 명령, 부탁, 제안 등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중 {네, 어, 응, 음, 예} 등은 [+긍정]을 나타내고, {아니}는 [-긍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6)과 같은 문장에서 {네}를 사용함으로써 존재, 긍정, 수용, 허락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선행화자의 발화행위가 발화로 된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 {네}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6)가. 김아명 (출석을 부를 때)	네.
나.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네, 비가 와요.
다. 오늘 9시까지 사무실로 오세요.	네, 9시까지 갈게요.
라. 이번 달에 발표가 있는데 준비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바. 제러미 씨, 이번 여름 방학에 제주도도 여행갈까요?	네, 같이 가요.

(6가-나)과 같이 호명에 대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긍정적 답변으로 {네}가 쓰이기도 하고, (6다)와 같이 행동에 대한 명령을 한 문장에 대한 답변으로 {네}가 쓰였다.¹⁵⁾ 이외에도 {네}가 대화상황에서 가지는 의미는 정보표시 기능으로는 상대질문, 부탁, 명령, 제안에 대한 긍정, 수용, 수락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를 [-높임]의 경우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아명아!	{*아/ 어 / *에 / ?음 / 응}
나. 지금 밖에 비가 오니?	{*아/ 어 / *에 / 음 / 응}, 비가 와.
다. 오늘 9시까지 사무실로 와 게.	{*아/ 어 / *에 / 음 / 응}, 9시까지 갈
라. 이번 달에 발표가 있는데 좀 도와줘.	{*아/ 어 / *에 / 음 / 응}, 도와줄게.
바. 제러미, 이번 여름 방학에 여행갈래?	{*아/ 어 / *에 / 음 / 응}, 같이 가

15) (6)의 예문은 말뭉치 자료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필자가 만든 예문이다.

자.

(6')와 같이 선행발화의 호명, 질문, 명령, 권유, 제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에는 {어, 응} 등이 적극적인 [+긍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아, 예}는 이 경우 불가능하며, {음}의 경우는 호명일 때는 불가능하나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다. 흔히 {아}와 {어}는 이형태라고 여기지만, {아}는 이 경우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는 적극적인 [+정보 / +의지 / +긍정]의 표지인데 앞서 2.1에서 보았듯이 사전에서는 이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보 / +의지 / +긍정]의 표지인 {네/예}의 [-높임]의 기능을 하는 형태로 {응}을 사전에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응}과 함께 {어, 음}은 변이형으로 봐야 한다.¹⁶⁾ 정보 표시 기능은 주로 선행화자가 제시한 질문, 명령, 부탁, 제안 등에 대해 {네}를 사용함으로써 긍정, 수용, 허락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선행 화자의 발화행위에 대해 화자가 {네}를 사용함으로써 {네}의 기본의미로부터 선행화자의 발화행위를 긍정, 순응, 수용 또는 허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담화표지의 사용은 화자가 선행화자의 발화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발화행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정보 표시 기능은 일단 화자가 자신이 전달한 긍정적 태도 정보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

(7)가: - 일차 시험까지도 놀잖아요?

나: 음. 쯤 시간이 있어서

(8)가: 그 스커트 있잖아요?

나: 어. 스커트 입었어요?

(9)가: 연지 친구하고 만났어?

나: 응. 어제 만났지.

(10)가: 언제든지 나갈 때 교복 입고 나왔어?

나: 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6) 이러한 {어}는 ‘화제 시작, 주의집중, 시간별기, 끼어들기, 화제 전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탄사로 조사되었다(안의정 2008). 또한 {아}와 {어}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은 강우원(2002), 김영철(2006) 등에서 다루어졌다. 이필영(1999)에서는 {어}를 {응}의 변이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예, 네}의 ‘해체’형으로 보아 의지적 감탄사의 하나로 분류한 결과이며, 한승규 외(2011)에서도 의지적 감탄사로서의 {어}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했다. 즉 청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명령, 부탁, 제안 등의 화행에 대한 거절로 {아니}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어말뭉치에서 보이는 ‘제안, 권유’의 경우 (12, 13)과 같이 {됐-, 팬찮-, 싫-}류가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아니}가 나타난다. 이것은 상대방의 견해나 생각을 존중하게 되어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12)가: 개발에 따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맨날 굶은 일이 제가 도맡아서 다 하고 결정적으로 뭐 먹을 때는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참, 저 정말 이렇게 못살겠습니다.

나: 알았어, 알았어. 내 오늘 광어 회 일 키로 사줄게, 응?

가: 됐습니다.

나: 아니, 내가 광어 회 사준대잖아.

가: 됐어요. 됐어요.

나: 아, 내가 광어 회 사준다니까.

실제로 (12)와 같이 제안에 대한 거절로 {되다}의 과거형인 {됐-}류가 사용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13)가: 타요. 태워 줄게요.

나: 팬찮아요.

가: 타요. 가는 길이니까 태워 줄게요. 가는 길이니까 태워주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나: 싫어요. 지하철 타고 갈래요.

가: 타요. 타요.

나: 아뇨. 고맙습니다. 잘 가요.

(13)은 제안에 대해 거절을 할 때 어떤 표지를 사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팬찮-}류로 시작하다가 다음에는 {싫-}류로 표시하며, 마지막에 강한 거절을 표시하기 위해 {아니}라는 표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정보 표시, 의지 표시, 부정 표시]의 경우에는 {아니}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나, {됐-, 팬찮-, 싫-}류가 사용될 수도 있다.¹⁷⁾

17) 그러나 이 글의 연구대상이 감탄사 유래의 담화표지이므로 {싫-, 팬찮-, 됐-}류는 <표 2>에

<표 2> [정보, 의지 표시] 기능과 변이형

	[+긍정]		[-긍정]	
	[+높임]	[-높임]	[+높임]	[-높임]
[정보 표시] [의지 표시]	네	응, 어, 예, 음	아니요	아니

3.2 [정보 표시, 형식 표시] 기능

두 번째 감탄사 {아, 어, 예, 음, 응, 네, 아니}의 기능은 청자와 관계에서 정보를 주지만, 특별한 화자의 의지는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앞서 감탄사 분류에서 형식 감탄사 부류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기능적으로는 청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기능 중 먼저 [정보 표시, 형식 표시, 긍정 표시]의 의미기능을 하는 {아, 어, 예, 응, 음, 네}의 기능을 알아본다.

첫째, 경청기능이다. 이것은 공손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청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의 발화에 대해 청자는 호기심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14, 15)의 예가 그것이다.

(14)가1: 어떻습니까? 잠깐 서동만 교수께서 간략하게 좀, 우리 직업도 공무원이고,

나1: 아,

가2: 그렇다고 정말 나만 생각해서 많이 낡아 나 갖고

나2: 어.

가3: - 잘 기를지 어떨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나3: 아.

(15)가1: 여자의 경우에는 돈도 그때 십만원 줬어.

나1: 오::.

가2: 차에 태워 가지고예,

나2: 동네 나와가지고예,

가3: 아하.

나3: 차에 태워 갖고 그래 가 가지고는, 수술하고 오면은 돈도 주고,

가4: 음.

나4: 또 애기 한 명 낳고 그만 놓는 집에는,

가5: 음.

나5: 애기 놓는 돈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했었예 이하 단산한 가정 이런 데서는 병원비도 그냥 해 주고예.

가6: 으흠.

나6: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가7: 예예.

(14)에서는 [가]가 주로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는 상대방의 발화내용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 어}를 통해 표시하고 있다. (15)에서도 [가]가 주로 발화를 하면 이에 대해 [나]는 {오, 아하, 음, 으흠, 예예} 등과 같이 다양한 경청표시를 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을 한다는 경청표시는 {네, 어, 아, 음(으흠), 오, 네, 예}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청자의 주의 환기 기능인데, 청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화자가 {네}를 사용한다. 선행발화나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아니라, {네} 다음에 나오는 화자 자신의 발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선행발화 없이도 화자가 특정한 자신의 발화목적에 청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를 사용하기도 한다.

(16)가. 네, 그럼 수업 시작할까요?

나. 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다. 어~ 우리 오늘 시청자들이, 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 어~ 공무원::이 어~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 예~ 우리나라 경우에 그::~ 예~ 공익필수사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 어~ 우선::은 쯤 사실관계를 그대로 쯤 이~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경우는 {네, 어, 예} 등이 사용되고 {아, 응, 음} 등은 불가능하다.

셋째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선행화자의 발화가 끝난 후에, 기존 화제에 대한 그동안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17)가1: 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병원 은행.

- 가2: 이런 거 못지 않게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3: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4: 아~ 국민 일상생활에 중요하다.
 가5: 어::~ 그리구 만약 공무원::노조가 설립될 경우에,
 가6: 만약 어~ 일을 지연시킨다든지, 태업을 한다든지,
 (18)가1:- 잘 기를지 어떨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나1: 아.
 가2: 그래가지고 둘만 놓고 그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예.
 나2: 아, 그러다가 민주당을 낳으셨네?
 가3: 예.

(17, 18)에서의 담화표지 {어 그리고, 아 그러다가}는 화제전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 어, 예, 음, 네} 등이 사용되나, {응}은 불가능하다.

넷째, 말차례 가져오기 기능은 상대 화자가 말을 하는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차단하면서 말차례를 자져오는 경우, 손상되는 상대의 체면을 보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선행화자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들어볼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 (19)가1: 예~ 우선::은 쯤 사실관계를 그대로 쯤 이~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나1: 네 남교수께서 바로
 다1: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나2: 네 말씀하시죠.
 다2: 우선 그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다시 인제 또 그~ 사실관계를 얘기할 때
 하기로 하구요,

(19)에서는 대화참여자가 3명인 상황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해 담화표지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화자 [가]는 {예~}로 시작하여 발언권을 가지려고 했으나 화자 [나]는 {네}라는 담화표지로 말차례를 가져와 [다]에게 발언권을 넘긴다. 화자 [다]역시 {예}로 발언권을 획득하고 발화를 이어가는데, 이와 같이 말

차례를 가져오기 위해 {네, 예, 어, 음, 에}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응}은 사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문미 억양을 내리면서, 자신의 발화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거나, 올림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상대의 동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20)가. 저 꼭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네.

나. 결단코 저는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21)가. 함께 가요. 네?

나. 그럼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다. 결혼하면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언니도 잘 살거야 미순아. 응? 결혼 정말 축하한다. 잠시나마 서운한 마음 가졌던 이 언니 용서하고 이해해 주렴.

(20)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의 발화 뒤에 {네}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는 {네}를 내림조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고, {음}도 가능하다. (21)처럼 관심이나 동의를 유도할 때는 담화표지 {네}를 올림조로 말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동의나 관심을 보여, 청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올림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네}는 상대 동의, 유도 기능은 청자에 의해 충족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의 화자의 발화는 명령이나 부탁, 제안, 청유, 질문 등에서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네, 응, 어, 음} 등은 가능하나 {에}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말차례 유지, 발언권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22)가1: 어~ 우리 오늘 시청자들이,

가2: 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3: 네 지금 공무원도 노동자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삼권 혹은 노동기본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쯤.

가4: 어~ 공무원::이 에~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5: 에~ 우리나라 경우에 그::~ 에~ 공익필수사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6: 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병원 은행.

- 가7: 이런 거 못지 않게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 가8: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 가9: 아~ 국민 일상생활에 중요하다.
- 가10: 어::~ 그러구 만약 공무원::노조가 설립될 경우에,
- 가11: 만약 어~ 일을 지연시킨다든지,
- 가12: 태업을 한다든지,
- 가13: 이런 경우에 예~ 국제경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 가14: 많은 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 가15: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가16: 예~ 단결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어~ 아이엘오규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가17: 어~ 아이엘오규정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 가18: 예~ 공공근로 부 근로자 중에서,
- 가19: 정책결정 또는,
- 가20: 관리에 관계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 가21: 어::~ 제외된다.
- 가22: 이게 아이엘오의 해석입니다.
- 가23: 자 우리나라의 육급 이하 공무원들 보 보면은요,
- 가24: 아~ 많은 사람들이,
- 가25: 어~ 정책결정에,
- 가26: 참여하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있든지,
- 가27: 자신의 임의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는 화자 1인이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발언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 아, 예, 예, 음} 등의 표지를 계속 사용한다. 이것은 중간 중간 말이 끊긴 상황에서 화자가 발언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표시하고, 다른 대화참여자의 말차례 가져오기 시도를 막으려는 전략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정보 표시, 형식 표시, 부정 표시] 기능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는 {아니}가 있다.¹⁸⁾ {아니}의 첫 번째 의미기능으로는 주의 환기 기능을 들 수 있다.

18) {아니}에 대해서는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 아니02 「감탄사」 「1」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2」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표준 국어대사전>

나. 아니02 「감탄사」 「1」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2」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아니2 :감. ①

담화표지 {아니}는 화자가 발화전에 보거나 듣고, 느낀 것에 대한 자신의 ‘놀람, 의아함’을 나타낸다. {아니}를 발화하면서 자신이 듣고, 보고, 느낀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기 어려워 놀라거나 의아스러워하고 있음을 의도한다.

(23)가. 아니, 김 선생님 아니세요?

나. 아니 이게 누구야? **씨 아니예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놀람 기능을 표시함으로써 상대 발화에 대한 적극적 호기심, 관심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청자로서 {아니} 발화가가 상대 화자의 이야기 내용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흥미,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화자가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아니}로 화자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확인 질문을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담화표지 {아니}는 청자가 화자의 할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주의 환기 기능’으로도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둘째는 화제 전환 기능이다. 담화표지 {아니}는 대화를 새로운 화제로 바꾸어 가려는 신호로도 사용된다. 이 화제 전환 기능은 지금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화제와 다름을 암시하고, 화자가 생각하는 화제를 새로운 화제로 제시하는 기능이다. 화제 전환 기능의 {아니}는 다른 관점 제시 기능의 경우처럼, 기존의 화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루어온 화제의 중요성, 가치를 인정하면서, 기존 화제와 다른 새로운 화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24)가1: 설문 조사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아까 웨영이 형 말대로 그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애.

나1: 경영학과 학생들의 여과 시간 이용 실태. 공간 시간 이용 실태.

가2: 수업 몇 번이나 빠졌는가 뭐.

나2: 논문 주제로는 약간 좀.

가3: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시험해 본 사람은 없잖아.

놀라움, 감동 등을 나타냄. ② [한 단어만으로]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대답하는 말. ③ 어떤 사실을 힘주어 말하기 위하여 앞에 말한 내용을 부정하는 말. <연세 한국어사전>

다1: 그가 수업을 몇 번씩 빠졌나 뭐 그런 거

나3: 수업 참여도 같은 거

(25)가1: 주로 어떻게 뭐 하고 지내십니까? 락카페에 가 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1: 락카페? 그런 쪽은 또 관계가 없지.

다1: 미팅은 몇 번했느냐?

가2: 아니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 그거를 말하는 거지. 나이트 가보셨어요 뭐, 이런 거? 영화는 좋긴 좋은데 비디오 값이 아깝고.

화제 전환 기능은 (24)(25)처럼 화자가 의도했던 대로의 주제 아닌 다른 것일 경우, 이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표지이다. (24)는 공동의 연구 주제를 정하면서 설문문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 3명이 대화를 이끄는 것이다. 이 중 [나, 다]는 해당 주제가 논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니까 [가]는 적극적으로 본래 주제로 화제를 옮겨가려는 의도로 {아니}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25)의 경우도 대학생의 놀이 문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데, [나, 다]는 주제에서 벗어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할 때, 본래의 화제로 돌리기 위해 화자 [가]는 {아니}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아니}는 상대 화자의 발화 도중에 끼어들거나, 상대 화자로부터 말차레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아니}를 발화함으로써 화자는 상대 화자의 발화와는 다른 생각이 막 떠올랐고,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26)과 같다.

(26)가1: 그~ 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1: 아니, 됐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저한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가2: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돌아 와서 통산부장관실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엠에프구제금융 신청 여부에 대해서

나2: 아니,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제 시간을 잡아먹지 마시라니까요!

가3: 답변기회를 주십시오! 질문하셨으면요. 저를 오게 하셨을 때에는 답변을 들으려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나3: 아니 기자회견 내용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4: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도록 해주십시오.

(26)과 같이 대화참여자 [가, 나]는 치열하게 말차레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1]의 발화에 대해 [나2]는 {아니, 됐습니다}라는 표지로 말차레를 주지 않고 있으며, [나2, 나3]에서도 {아니}를 사용하면서 발언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상대의 발화에 끼어들고 말차레를 빼앗아오는 것은 분명 상대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지만,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의 발화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의 발화를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그것과 다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그것을 적절하게 얘기할 상황이 바로 당사가 적기임을 알리기 위해 {아니}를 사용하고 있다. 즉 화자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차레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정보 수정 기능이다. 다름을 나타내는 담화표지 {아니}는 화자의 의견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을 위해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7), (28)처럼 화자는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청자의 이의제기를 듣고, {아니}를 발화한다. 이것은 화자가 청자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청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의견이 다름을 함축하고, 화자의 의도를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27)가1: 순정아, 너, 선볼래?

나2: 선?

가1: 응. 아니, 뭐 부담 갖지 말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소개시켜줄께. 야, 너희 아버님도 이해가 된다, 야. 우리 나이가 벌써 몇이나? 볼래?

(28)가1: 너야? 오토바이를 저런 데 세워 놓고 그래? 어유, 많이 찌그러졌네 응? 야, 순정아 너 이런 데다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그러냐? 너 주차 기본도 모르냐? 아이 참.

나2: 죄송합니다.

가1: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담화표지 {아니}는 (29)처럼 상대의 주장이나 견해를 직접 반박하거나 부정하

는 대신에,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면서 자기주장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화자는 담화표지 {아니}를 사용하여 자기의 발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발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기도 한다.

(29)가. 1970년대, 아니 정확하게는 1972년

나. 이번엔 시험에선 합격할 것 같아요. 아니 꼭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화표지 {아, 어, 예, 음, 응, 네, 아니}가 다양한 의미기능이 사용됨을 살펴보았다.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는 [정보 표시] 기능과 [감정 표시] 기능으로 나누었는데, 이 글에서는 [정보 표시] 기능만을 다루었다. [정보 표시] 기능은 다시 [의지 표시] 기능과 [형식 표시] 기능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은 [+공정, -공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의미기능은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정보 표시, 형식 표시] 기능의 의미

형태 기능	[+공정]						[-공정]
	네/예	어	아	예	응	음	아니
경청	○	○	○	×	×	○	×
주의 환기	○	○	×	○	×	×	○
화제 전환	○	○	○	○	×	○	○
말차례 가져오기	○	○	×	○	×	○	○
내용 강조	○	○	×	×	×	○	×
말차례 유지	○	○	○	○	×	○	×
정보 수정	×	×	×	×	×	×	○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감탄사에서 유래된 담화표지의 의미기능을 체계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형태적 다양성과 담화상에서의 기능으로 인해 화용적 의미의 설명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어말뭉치에서 사용되는 감탄사에서 유래된 고빈도 담화표지 {아, 어, 응, 음, 오, 네, 아니} 등의 의미를 사전과 비교하여 보고, 실제 구어말뭉치에서의 사용례를 중심으로 화용적 의미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여기에서 정리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서는 감탄사에서 유래된 담화표지의 의미 기능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아}의 경우 감정 감탄사로만 다루고 있지만, {아}는 실제로 청자의 발화에 대해 반응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된다. 또한 {어}의 기능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응답의 기능을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아, 어, 에, 응, 음} 등은 선행연구에서 감정 감탄사, 형식 감탄사, 의지 감탄사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 글에서는 크게 [정보 표시] 기능과 [감정 표시] 기능으로 나누고 [정보 표시] 기능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셋째, [정보 표시] 기능을 하는 것은, 화자의 의지가 대답 등에 나타나는 [의지 표시] 기능과 화청자의 관계를 맺어주는 [형식 기능]으로 나누었고, 각각을 [+긍정, -긍정]으로 나누었다.

넷째, [정보 표시, 의지 표시, 긍정 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네, 어, 에, 응, 음} 등이 사용되며, 특히 {어, 응}은 해라체에서의 {네/예}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보 표시, 의지 표시, 부정 표시]로는 {아니}류가 사용되나, 제안이나 권유의 경우에는 {됐-, 괜찮-, 싫-}류가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정보 표시, 형식 표시, 긍정 표시]의 의미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아, 어, 에, 응, 음, 네} 등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경청기능, 청자의 주의 환기 기능, 화제 전환 기능, 말차례 가져오기 기능, 내용 강조 기능, 말차례 유지 기능' 등을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표3>과 같이 정리된다.

일곱째, [정보 표시, 형식 표시, 부정 표시] 기능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는 {아니}가 있는데, 이것은 '주의 환기 기능, 화제 전환 기능, 말차례 가져오기 기능, 정보 수정 기능'을 한다.

이렇게 담화표지는 구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일정한 담화상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 태도 등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를 모국어 화자들은 직관적으로 사용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지를 못했다. 심지어 한국어교재에서조차 담화표

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 이해교육과 구어교육, 담화교육 등에서 문제가 컸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강우원. 2002. “담화표지 ‘아’와 ‘어’의 특성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 12, 241-257.
- 강범모·김홍규. 2009. 『한국어 사용 빈도』, 한국문화사.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2009. 『고려대한국어사전』, 고려대.
- 국립국어원. 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영철. 2006. “국어 담화표지 ‘어’의 고찰”, 『국어문학』 41, 249-266.
- 김하수. 1989. “언어 행위와 듣는 이의 신호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 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말)』 21, 55-71.
- 남기삼·고영근. 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서상규·구현정. 2005. 『한국어 구어 연구(2)』, 한국문화사.
- 신지연. 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241-259.
- 안의정. 2008. “말뭉치를 이용한 어휘의 구어성 측정과 활용”, 『어문논집』 57, 93-119.
- 안주호. 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말)』 17, 21-38.
- 안주호. 2000. “‘그러-’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 35, 113-141.
- 안주호. 2009. “축약형 담화표지 ‘좀/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 199-223.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원표. 1995. “의지감탄사 {예, 아니, 글썄}의 담화 분석”, 『사전편찬학연구』 5/6, 164-218.
- 이원표. 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필영. 1999. “국어의 응답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71-105.
- 이한규. 2011. “국어 담화표지 ‘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5, 171-197.

- 한승규·양예슬. 2011. “감탄사 ‘어’의 의미와 용법”, 「언어사실과 관점」 21, 112-132.
- 허재영. 2001. “감탄사 발달사”, 「한국어어미학」 9, 65-96.
- Aijmer, K. 2002. *English Discourse Particles: Evidence from a Corpus*, Amsterdam: John Benjamins.
- Brown, P. & S.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B. 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931-952.
- Müller, S. 2005. *Discourse markers in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안주호

336-745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전화번호: 041-530-3063

전자우편: anjh1772@hanmail.net

투고논문접수일	2012년 5월 9일
논문심사일	2012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3일